

《 _____ 논리학 세특 보고서 자료 》

하이에듀

주제	미디어 리터러시와 논리적 오류
요약	논리학과 미디어 분야 관련 세특 보고서 자료입니다. 미디어에서 등장하는 논리적 오류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사례를 제시한 후,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 가이드라인과 참고 자료를 토대로 세특 보고서를 완성하면 됩니다. 탐구 동기와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여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성 가이드라인]

제목: 미디어 리터러시와 논리적 오류

1. 서론

1) 탐구 동기

- 탐구 동기는 아래의 예시처럼 교과 내용을 전공과 연결하여 제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논리학 교과 시간에 논리적 오류에 대해 학습하고, 일상 속 많은 순간에서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미디어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오류를 범하도록 보도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미디어에서 나타난 논리적 오류의 사례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탐구 목적

미디어에서 나타난 논리적 오류의 개념과 그 사례를 탐구한다. 미디어의 수용자들이 어떤 오류에 속게 되는지, 어떤 심리를 활용하여 오류를 범하게 되는지 등을 탐구한다. 또한,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고, 미디어를 올바르게 수용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할 것이다.

2. 본론

- 본론 1에서는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리적 오류를 제시하고, 해당 오류의 사례나 설명을 덧붙이면 됩니다.

1) 논리적 오류와 미디어에서의 사례

(1)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

미디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첫 번째 오류는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로 많은 사람이 믿고 있다는 이유로 어떤 명제를 참이라고 결론짓는 것을 의미한다. 미디어에서 '대다수의 국민', '국민 대부분'이 어떠한 특징을 보인다고 제시하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대할 때 사용되는 오류이기도 하다. 또한, 광고나 홍보 등에서 '베스트셀러', '최신 유행템' 등 다수의 사람들이 구매했다는 것을 제시하며 해당 제품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리를 유발한다.

(2)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두 번째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이는 제한된 정보와 부적합한 증거, 대표성이 결여된 사례를 근거로 '일반화'를 저지르는 오류를 의미한다. 뉴스 등에서 특정 집단이 어떤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자료를 통해 해당 집단 전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것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다. 무고한 무슬림 유학생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대우받았던 사례와 같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3) 인과적 오류

세 번째는 인과적 오류이다. 흔히 어떤 사건을 원인과 결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인과 관계의 해석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인과적 오류이다. 두 가지 사건 중 먼저 일어난 사건을 원인으로 간주하거나 우연적인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판단하는 경우 등이 있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 흡연과 심장병을 함께 유발하는 어떤 요인으로 인해 흡연이 심장병을 일으킨다는 보도를 한 경우, 이는 인과적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러한 오류로 인해 사람들은 잘못된 결과를 불러오는 원인을 오해하게 되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진다.

2) 논리적 오류를 알아내고, 미디어를 올바르게 수용하는 것

이처럼 미디어에서 정보가 제공되는 과정과 이를 수용자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다양한 논리적 오류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리적 오류의 존재를 이해하고, 정보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중요해진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해 제시된 자료가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논리적 추론의 과정을 이해하고, 논리적 오류의 존재를 확인하여 논리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많은 종류의 오류들이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화와 추측 등 논리성이 결여된 사고방식을 수정해야 한다.

3. 결론

1) 본론 요약 + 강조할 부분

본 탐구를 통해 논리학에서 학습한 논리적 오류 중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오류를 정리하고, 그 예시를 제시했다. 이러한 오류의 존재를 인지하고, 정보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2)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 미디어의 수용자의 측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제시했기 때문에, 생산자의 측면에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탐구를 통해 미디어에서 정보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정확하고 논리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논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료 1.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허위정보에 속는다

이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의 해악은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사실이 아닌 정보와 뉴스를 근거로 잘못된 주장과 판단을 하고 그 결과가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피해는 우려할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방법 중에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검토하여 재창조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하지만 전문가의 영역처럼 보이는 이런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쉽지 않다. 대중들은 자신이 허위조작정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미스텐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뉴미디어에 친숙한 청소년들도 80%가 뉴스성 광고를 진짜 뉴스라고 착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허위조작정보를 구분하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비법'까지는 아니어도 허위조작정보 판별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사회과학 이론들이 있어 정리했다. 이 정도면 알고 있어도 허위조작정보 판별에 큰 도움이 된다.

1. 가장 흔한 실수 '선부른 자의적 일반화'

사람들이 뉴스나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은 일반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일반화됐다고 생각하기에 공유하기도 하고, 공유를 통해 일반화를 꾀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일반화를 통해 동질감을 느끼고 소속감에 안도한다. 하지만 일반화에는 다양한 형태의 오류가 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The fallacy of hasty generalization)'가 있다. 제한된 정보, 부적합한 증거, 대표성을 결여한 사례를 근거로 '일반화'하는 오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세 번의 우연이 겹치면 인연이다', '내가 해

‘봐서 아는데!’ 등 성급한 일반화의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특정 개인의 경험이나 사례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도 있다. 인지적 왜곡의 한 유형으로 한 두 건의 사건에 근거해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고 무관한 상황에도 그 결론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인지적 왜곡이란, 어떤 사실을 경험을 통해 받아들일 때 그 원인과 결과를 잘못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사람이 경험했던 사건을 근거로 형성된 극단적인 신념으로 상이한 현상을 서로 일치시켜 부적절하게 적응하는 과정이다. 과잉일반화는 사회적 통념 및 편견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성별, 인종, 국적, 언어, 나이, 종교, 피부색, 출신 지역 등에 대한 과잉일반화는 정치적, 젠더적 차별의 근거로 통념화되기도 한다.

2. 적 아니면 동지, ‘흑백논리’

모든 경험을 한두 개의 범주로만 이해하고 중간지대 없이 흑백논리로서 현실을 파악하는 이분법적 사고(Dichotomous Thinking)다. 오직 아군 아니면 적군으로 구분하는 군사문화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국에 특히 많다. 여기에 우리 편은 무조건 다 옳은 선이고 반대편은 무조건 다 틀린 악이라는 ‘무 논리’까지 더해지면 스스로 논리가 꼬이기도 한다.

이분법은 논리적으로 명쾌해 보이지만 현실성이 없다. 세상은 양자택일 하듯이 간단치 않으며, 다원적인 가치로 얽히고설켜 움직인다. 이분법적인 사고는 대립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반목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이분법은 OX 퀴즈에서만 유용하다.

3. 대화가 불가능한 당신, ‘확증편향’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은 실제적 진실을 외면하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심리적 병리현상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확증편향에 빠지면 자신의 선입견이나 뜻에 거슬리는 통계는 무조건 배척하려 한다.

자신의 신념이나 기대와 일치하는 정보는 쉽게 수용하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그것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라도 무조건 무시해 버리거나 거부해 버린다. 어떤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 주장을 확인해 주거나 확증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나 정보에만 더 무게를 둔다. 정당과 다수의 정파적 언론에서 은밀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확증편향을 활용하기도 한다.

4. 먼저 발생했다고 모두 원인은 아니다

‘잘못된 인과 관계의 오류’는 단순한 선후 관계를 인과 관계로 잘못 추리하는 것이다. “까

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에서 까마귀가 날아간 것과 배가 떨어진 것은 우연히 시간상으로 이어졌을 뿐이지 원인과 결과가 아니다.

‘바늘 하나로 코끼리 죽이는 법’이란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방법은 세 가지 1)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바늘로 찌른다 2) 코끼리가 죽기 바로 전에 바늘로 찌른다 3) 바늘로 찌른 후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답에서 2번과 3번은 단순한 선후 관계를 인과 관계인 것처럼 비틀어 재미를 주고 있다. 이처럼 단순한 선후관계를 인과관계로 추리하는 것은 농담에 더 가깝다.

(중략)

출처: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7>

자료 2. 오류 범하기 쉬운 인과관계, 앞뒤 파악이 먼저

주장을 정당화하거나 주장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원인과 결과일 것이다. 사건이나 사실을 설명할 때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비구름이 몰려온다”는 사건에 대해 ‘왜’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 물을 수 있다. 사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이 사건의 원인을 밝히면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줄여서 ‘인과관계’로 부른다. 인과관계의 본성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범하는 오류를 살펴보면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첫번째 오류는 인과관계와 시간상의 선후 관계를 혼동하는 것이다. 인과관계에서 원인은 시간을 기준으로 결과에 항상 앞서 있다. 그러나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에 시간을 기준으로 앞선다고 두 사건의 관계가 항상 인과관계는 아니다.

예를 들어, “갑돌이가 할인매장을 들어가면 그 매장은 항상 손님이 몰린다”는 관계를 보자. 갑돌이가 할인매장에 들어가는 사건이 매장에 손님이 몰리는 사건 보다 시간상으로 앞선다. 그러나 첫 번째 사건을 두 번째 사건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두 번째 오류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것이다. 다음 사례를 보자, “천재들은 명성을 얻었다. 따라서 명성을 얻으면 천재가 될 것이다” 명성을 얻는 사건은 천재가 된 사건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은 결과를 원인으로 혼동하였다.

세 번째 오류는 우연적인 상관(相關)관계를 인과관계로 판단하는 것이다. “흡연이 심장병을 일으킨다”는 사례를 보자. 흡연을 심장병의 원인으로 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흡연과 심장병을 공통으로 발생시키는 유전자가 있다. 이 유전자는 흡연과 심장병의 공통원인이다. 따라서 흡연과 심장병은 규칙적으로 함께 발생하는 상관관계일 뿐이다.

이처럼 단순히 우연적이고 규칙적인 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겠다. 인과관계의 특성만 주목하자.

인과관계는 시간상으로 연결된 두 사건의 선후 관계가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연결된 관계이다.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때 인과관계로 혼동할 수 있는 관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인과관계가 되기에 부족한데 인과에 관한 표현만으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사례가 많다. 그런 사례는 입증이 필요한 주장을 무의미하거나 논리의 비약으로 만든다. 다음 글을 보자.

“신문 정치 기사에서 다이어그램은, 정당의 지지율 변화와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 결과 등 축적된 정보의 변화 양상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며 독자의 관심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학술논문의 일부)

다이어그램이 신문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을 준다는 주장이다. 다이어그램은 원인이고 독자의 빠른 이해는 그 원인의 결과이다. 이 주장만으로 위 글을 읽은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인과관계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 글의 독자들이 필자와 같은 배경 지식을 가지면 신뢰할만한 인과관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독자에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대담한 기대이다. 필자는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그런 결과를 필연적으로 초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다. 논리의 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글을 보자.

“수도권에 대한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당위적 인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난 40년간 수도권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분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런 문제는 여전히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정책에서 풀어야 할 난제로 남아있다.” (학술논문의 일부)

(밑줄 친 부분을 보면) 필자는 수도권에 대한 집중을 억제하는 정책과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대등한 관계로 표현했다. 그러나 이후 글의 내용을 보면 두 정책은 대등하지 않다. 수도권에 대한 집중을 억제하는 정책은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다. 첫 번째 정책의 성공은 두 번째 정책의 원인이 된다. 밑줄 친 부분은 부주의한 표현 방식으로 인과관계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 사소한 지적일 수 있지만 이런 문제점이 독자의 정확한 이해를 막을 수 있다.

출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7/04/2007070401201.html